



THE BRIDGE COMPANY

CHARLES

RICHARD-HAMELIN

P I A N O R E C I T A L

샤를 리샤르-아믈랭 피아노 리사이틀

CHARLES RICHARD-HAMELIN

P I A N O R E C I T A L



M. Ravel

Pavane pour une infante defunte
Prelude (1913)
Le Tombeau de Couperin

F. Chopin

24 Preludes, Op.28

샤를 리샤르 - 아틀랭 피아노 리사이틀

2022. 11. 18^{FRI} 7:30^{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주관 THE BRIDGE COMPANY



“샤를 리샤르-아믈랭은 자신이 연주하는 음악에 대한 대담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이를 뒷받침할 감정적 소양, 방해 없이 음악을 전달 할 수 있는 테크닉을 보유하고 있다.”

- 그라모폰

Program

모리스 라벨
Maurice Ravel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Pavane pour une infante défunte

🕒 7'

프렐류드 (1913)
Prélude (1913)

🕒 2'

쿠프랭의 무덤
Le Tombeau de Couperin

🕒 25'

- I. 프렐류드 Prélude
- II. 푸가 Fugue
- III. 포를랑 Forlane
- IV. 리고동 Rigaudon
- V. 미뉴에트 Menuet
- VI. 토카타 Toccata

I n t e r m i s s i o n

프레데리크 쇼팽
Frédéric Chopin

24개의 프렐류드, 작품번호 28
24 Préludes, Op. 28

🕒 42'

- 제1번 다장조, 급하게 No.1 in C major, Agitato
- 제2번 가단조, 느리게 No.2 in A minor, Lento
- 제3번 사장조, 빠르고 생기있게 No.3 in G major, Vivace
- 제4번 마단조, 느리고 장중하게 No.4 in E minor, Largo
- 제5번 라장조, 매우 빠르게 No.5 in D major, Molto Allegro
- 제6번 나단조, 매우 느리게 No.6 in B minor, Lento Assai
- 제7번 라장조, 안단테보다 조금 빠르게 No.7 in A major, Andantino
- 제8번 올림 바단조, 매우 급하게 No.8 in F-sharp minor, Molto Agitato
- 제9번 마장조, 느리고 장중하게 No.9 in E major, Largo
- 제10번 올림 다단조, 매우 빠르게 No.10 in C-sharp minor, Molto Allegro
- 제11번 나장조, 빠르고 생기있게 No.11 in B major, Vivace
- 제12번 올림 사단조, 매우 빠르게 No.12 in G-sharp minor, Presto
- 제13번 올림 바장조, 느리게 No.13 in F-sharp major, Lento
- 제14번 내림 마단조, 빠르게 No.14 in E-flat minor, Allegro
- 제15번 내림 라장조, 빠르기를 억누르듯 No.15 in D-flat major, Sostenuto
- 제16번 내림 나단조, 정열적으로 빠르게 No.16 in B-flat minor, Presto con fuoco
- 제17번 내림 가장조, 조금 빠르게 No.17 in A-flat major, Allegretto
- 제18번 바단조, 매우 빠르게 No.18 in F minor, Molto Allegro
- 제19번 내림 마장조, 빠르고 생기있게 No.19 in E-flat major, Vivace
- 제20번 다단조, 느리게 No.20 in C minor, Largo
- 제21번 내림 나장조, 노래하듯이 No.21 in B-flat major, Cantabile
- 제22번 사단조, 매우 급하게 No.22 in G minor, Molto Agitato
- 제23번 바장조, 보통 빠르기로 No.23 in F major, Moderato
- 제24번 라단조, 빠르고 열정적으로 No.24 in D minor, Allegro Appassionato

*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The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피아니스트 샤를 리샤르-아믈랭

——— 21세기 낭만주의자라고 불리는 피아니스트 샤를 리샤르-아믈랭은 “매우 섬세한 피아니스트”(그라모폰), “그는 유려하고 다방면으로 뛰어나며 매력적인 음색과 우아하고 세련된 테크닉을 가졌다.” (BBC 음악 매거진) 등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으며 뛰어난 연주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5년, 그는 바르샤바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 및 최고의 소나타를 연주한 참가자에게 수여하는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상을 수상하였으며,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르 2위와 서울 국제 음악콩쿠르 3위 및 베토벤 소나타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샤를 리샤르-아믈랭은 프랑스 라 로크 당테롱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 체코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페스티벌,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과 그의 유럽, 루마니아 제오르제 에네스쿠 페스티벌 등 세계 저명 클래식 축제에 초청되어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그는 루네 버그만, 켄트 나가노, 바실리 페트렌코, 아체크 카스프치크, 아지즈 쇼하키모프, 피터 운진, 자크 라콩브, 파비앙 가벨, 카를로 리치, 알렉산더 프라이어, 크리스토퍼 캄페스트리니, 란 슈이, 장-마리 자이투니, 찰스 올리비에리-먼로, 하워드 셸리, 안토니 비트 그리고 조나단 코엔 등 세계적인 지휘자와 호흡을 맞추었으며, 솔리스트로서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퀘벡 심포니 오케스트라, 토론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에드몬톤 심포니 오케스트라, 몬트리올 이무지치,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싱가포르 심포니오케스트라, 히로시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레 비올롱 뒤 루와 체임버 오케스트라, 켈거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크라코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포즈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포니아 바르소비아 등 세계의 저명한 오케스트라들과 함께 협연을 진행하였다.

샤를 리샤르-아믈랭은 지금까지 9개의 음반을 녹음하였으며, 모두 아날렉타 레이블을 통해 발매되었다. 2015년, 쇼팽의 후기 작품을 녹음한 첫 번째 음반은 찬사를 받은 바 있으며, 2016년에 발매된 그의 두 번째 음반은 퀘벡시 몽칼름 궁전에서의 공연 실황으로 베토벤, 에네스쿠, 쇼팽의 작품을 녹음하였다. 이후, 그의 디스코그래피는 세 장의 음반으로 더욱 풍성해졌다.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솔로 바이올리니스트인 앤드류 완과 함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중 초기 작품을 녹음하였으며, 몬트리올 메종 심포닉에서 켄트 나가노의 지휘로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쇼팽의 두 개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한 실황을 음반으로 발매하였다. 가장 최근에 발매된 그의 음반에는 조나단 코엔의 지휘로 레 비올롱 뒤 루와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이 담겨있다. 이 앨범들은 음악 비평가들로부터 극찬과 수상의 영예를 받았다. 2021년, 바이올리니스트 앤드류 완과 함께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를 녹음한 두 번째 음반을 발매하였으며, 쇼팽 24개의 프렐류드,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대 폴로네이즈를 연주한 리사이틀 음반을 발매하였다.

그의 앨범은 펠리스 상, 디아파종 상, BBC 음악 매거진 상, 르 도보와르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캐나다 <2020 클래식 앨범 TOP 20> 1위, 캐나다 공영방송이 선정한 <2019 캐나다인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앨범>, 2019년 캐나다 몬트리올의 권위 있는 예술상인 <캐나다 퀘벡 음반공연 협회상>을 수상하며 캐나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티스트 중의 한 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Pianist **Charles Richard-Hamelin**

—— Silver medalist and laureate of the Krystian Zimerman Prize at the 2015 International Chopin Piano Competition in Warsaw, Canadian pianist Charles Richard-Hamelin is standing out today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musicians of his generation. In 2014, he also won the second prize at the Montreal International Musical Competition and the third prize at the Seoul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in South Korea. Charles is the recipient of the Order of Arts and Letters of Quebec and the prestigious Career Development Award offered by the Women's Musical Club of Toronto.

He has appeared in various prestigious festivals including La Roque d'Anthéron in France, the Prague Spring Festival, the "Chopin and his Europe" Festival in Warsaw and the Lanaudière Festival in Canada. As a soloist, he has performed with more than fifty ensembles including the main symphony orchestras of Canada (Montreal, Toronto, Ottawa, Métropolitain, Québec, Edmonton, Calgary...) as well as with the Warsaw Philharmonic, Sinfonia Varsovia, Singapore Symphony Orchestra, the Korean Symphony Orchestra, OFUNAM (Mexico), les Violons du Roy and I Musici de Montréal. He has played under the baton of renowned conductors such as Kent Nagano, Rafael Payare, Antoni Wit, Vasily Petrenko, Jacek Kasprzyk, Aziz Shokhakimov, Peter Oundjian, Jacques Lacombe, Fabien Gabel, Bernard Labadie, Carlo Rizzi, John Storgårds, Alexander Prior, Giancarlo Guerrero, Jonathan Cohen, Christoph Campestrini, Lan Shui and Jean-Marie Zeitouni. Charles Richard-Hamelin is a graduate from McGill University, the Yale School of Music, the Conservatoire de Musique de Montréal and has studied with Paul Surdulescu, Sara Laimon, Boris Berman, André Laplante et Jean Saulnier.

Charles Richard-Hamelin has recorded over ten albums to this day, all published on the Analekta label. Five of these are dedicated primarily to the solo piano works of Frédéric Chopin. He has also recorded concertante works - both Chopin piano concertos with the Orchestre Symphonique de Montréal conducted by Kent Nagano and Mozart's piano concertos nos. 22 and 24 with the Violons du Roy conducted by Jonathan Cohen. His recordings have earned several Félix (ADISQ) and one JUNO (2022) awards and received widespread acclaim from critics around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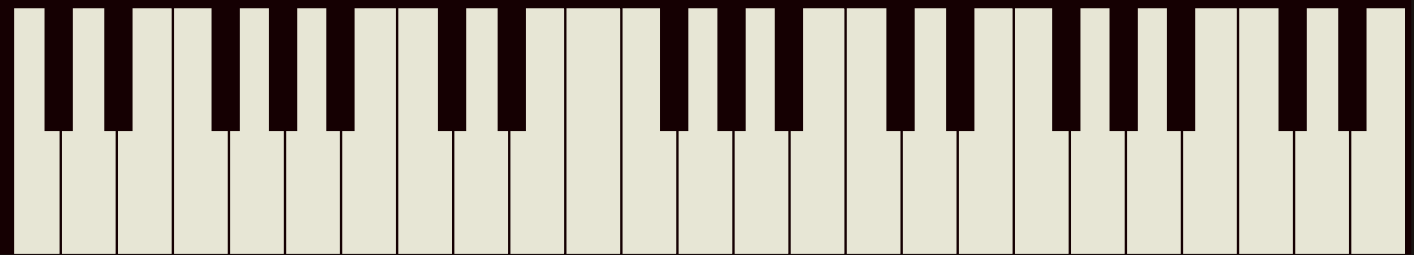
Program Note

라벨과 쇼팽 사이에서

라벨과 쇼팽이 샤를 리샤르-아믈랭(1989~)의 피아노 건반 위에서 만난다.

전체적으로 4곡이지만, 각 곡을 모두 펼쳐놓으면 32곡의 다채로움이 살아 숨 쉬는 순간이다.

아믈랭은 캐나다 출신의 피아니스트이다. 하지만 라벨을 통해 자신이 프랑스의 숨결과 닿아 있음을 보여주고, 쇼팽의 대표작을 통해 쇼팽의 후예임을 보여준다.



모리스 라벨 **Maurice Ravel (1875 ~ 1937)**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Pavane pour une infante defunte

오늘날 라벨의 대표적인 명곡으로 알려진 이 곡은 라벨 특유의 낭만적 농도를 느낄 수 있게 한다. 곡을 구상하던 당시 라벨의 머릿속에는 옛날 스페인 궁정에서 어린 공주가 파반느를 추는 장면이 떠났다고 한다. '파반느'(Pavane)는 16세기 초에 이탈리아에서 발생하여 17세기 중엽까지 유행했던 궁중 춤곡의 하나다.

이러한 파반느가 어떤 형태로 추어졌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라벨의 음악이나, 아니면 포레(1845~1924)가 남긴 '파반느'(Op.50)를 통해 춤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춤을 빛는 것이 음악이라고 한다면, 파반느는 분명 느리면서도 우아하게 추는 춤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상 속에서 듣는 라벨이나 포레의 파반느는 묘한 동경과 신비감으로 다가오는 음악이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는 라벨이 루브르미술관에 전시된 벨라스케스(1599~1660)의 회화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곡했다고 한다. 젊은 왕녀를 그린 초상화다. 하지만 라벨은 후에 이를 부인했다. 그런데도 듣고 있다 보면 회화 속 젊은 왕녀가 잔잔한 발놀림과 손짓으로 춤을 추고 있는 느낌을 듣게 된다. 그만큼 회화적이고 영상미가 살아 있다.

프렐류드 (1913)

Prélude (1913)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뒤에 <프렐류드>가 붙을 때, 우리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와 묘하게 공통되는 이 곡의 분위기나 구조를 발견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가득 채우고 있는 중후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살짝 견어내고, 그 곡의 선율과 윤곽선을 담백하게 드러낸 곡이 <프렐류드>라고 할 수 있겠다. 1913년 작곡된 이 곡은 파리음악원 초견 시험을 위해 작곡된 곡으로, 마디 수가 27마디에 불과한 매우 짧은 작품이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와 <쿠프랭의 무덤>을 이 곡으로 잇는 아들랭의 선곡력과 재치가 돋보인다. <쿠프랭의 무덤>도 [프렐류드]로 시작하는데, 그 전에 연주하는 <프렐류드>가 연필로 희미한 윤곽선을 잡아가는 순간이라면, 이어지는 <쿠프랭의 무덤>의 [프렐류드]는 16분음표의 물감으로 화폭을 완성해 나가는 순간이다.

1889년 피아노 독주곡으로 작곡된 곡으로, 오늘날에는 오케스트라 버전으로도 만날 수 있는 곡이다. 라벨(1875~1937)은 이 곡을 1910년 관현악 편성으로 직접 편곡하기도 했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뒤에 <프렐류드>가 붙을 때, 우리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와 묘하게 공통되는 이 곡의 분위기나 구조를 발견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가득 채우고 있는 중후하고

쿠프랭의 무덤

Le Tombeau de Couperin

1915년 초,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 당시다. 군대에 입대하기를 기다리던 라벨(1875~1937)은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얻어 피아노 모음곡을 구상하기 시작한다. 입대 후 작업은 잠시 중단되었고, 1917년에 전역한 후에야 재개된다.

전쟁 뒤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는 변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벗들은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쿠프랭의 무덤>은 그들의 무덤에 바치는 추모의 꽃이 되었다. 라벨은 여섯 송이의 꽃을 준비했다. 6곡을 모아 일종의 모음곡으로 만든 것이다.

더불어 프랑수아 쿠프랭(1668~1733)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는 곡이기도 했다. 쿠프랭은 프랑스 건반 음악의 아름다움을 극한으로 구현했던 음악가였다. 라벨은 쿠프랭이 이처럼 구현했던 18세기 바로크적 정서를 이 곡에 담는데, 바로크 특유의 선법과 화성 진행, 독특한 장식음이 라벨 특유의 간간한 논리와 정밀한 리듬과 잘 맞물렸다. 여기에 20세기 현대음악적 기법도 공존하게 하여, 불협화음과 반음계적 선율, 대담한 화음도 함께 하도록 했다. 이렇듯 이 곡은 라벨의 기억에 담긴 쿠프랭과 바로크, 친구들의 추억이 한데 어우러진 ‘기억의 음악’으로 태어났다.

[프렐류드](Prélude)는 16분음표들이 방울방울 솟아나는 풍경을 그리며 섬세한 기법들이 주를 이룬다. 라벨의 [어미거위 모음곡]을 필사한 벅 자크 샤를로에게 헌정되었다.

[푸가](Fugue)는 외면상 단순해 보이고 잔잔하다. 하지만 내면은 굉장히 정교하다. 바로크적 분위기와 라벨 특유의 동화적 감수성이 정확한 프레이징과 아티큘레이션 속에 살아 숨 쉰다. 친구 장 크루피에게 헌정되었다.

[포를랑](Forlane)은 이탈리아 춤곡인 포를랑의 형식을 취한다. 가벼운 스타카토, 각자의 구획을 풀고 어우러지는 4개의 주제, 곳곳을 채우는 붓점 리듬은 관능적이고 역동적인 춤곡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리고동](Rigaudon)도 춤곡의 하나다. 전장에서 사망한 친구 피에르와 파스칼 고갱 형제를 추모한 곡이다. 라벨은 두 사람과의 어린 시절 추억을 회상하듯 아기자기한 음표로 기억의 상자를 연다.

앞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들었다면, **[미뉴에트](Menuet)**가 조금은 더 친숙하게 들릴 것이다. <죽은왕녀를 위한 파반느>에서 보다 더 경쾌한 리듬을 타고 흐르는 곡처럼 다가가기 때문이다. 두 곡 모두 ‘G장조’라는 점은 물론 라벨 특유의 우아한 선율이 돋보인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장 드레퓌스를 추모하는 곡이다.

마지막 곡 **[토카타](Toccata)**는 현란한 기교의 집적물이다. 6곡 중에 연주하기 가장 까다로우며, 끝까지 긴장의 속도로 일관하는 무궁동(無窮動) 형식이다. 이 곡에서 라벨은 스카를라티의 현란함을, 혹은 리스트의 기교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다.

피아노 독주곡으로 태어난 곡은 후에 관현악곡으로도 편곡되었다. 여러 악기가 함께 하는 실내악 버전으로 목관 5중주 버전, 그리고 피아노와 함께 하는 6중주 버전도 있다.

프레데리크 쇼팽 Frédéric Chopin (1810 ~ 1849)

24곡의 프렐류드 Op.28 24 Préludes, Op.28

2020년 4월, 샤를 리샤르-아믈랭의 내한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성사되진 못 했다. 하지만 그는 인터뷰를 통해 쇼팽(1810~1849)에 관한 여러 생각들을 들려주었다.

“쇼팽은 여전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입니다. 평생 쇼팽을 연주하고 싶은 음악이죠. 다른 작곡가에 몰두하다가도 결국은 항상 쇼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쇼팽의 곡을 잘 연주하려면 화성과 성부 진행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쇼팽의 음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부 작용에 대해 많이 알게 될수록 쇼팽의 창조적인 천재성에 빠져들게 됩니다.” (월간 '객석' 2020년 4월호 참조)

그의 말대로라면 24곡의 소품들로 이루어진 프렐류드 Op.28는 쇼팽 음악의 구성미를 확실히 느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제목 그대로 24곡의 프렐류드(전주곡)로 구성된 이 곡은 쇼팽의 또 다른 대표작인 '에튀드'보다 작은 규모의 곡들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각 곡을 1836년부터 1839년까지 4여 년에 걸쳐 작곡하고 모았기 때문에 전체를 관통하는 특정 주제는 찾아볼 수는 없다. 조성도 각각 달라 장·단조를 아우른다. 공통점이라고는 '피아노를 위한 소품'이란 것뿐이다. 곡들의 길어도 제각각이어서 긴 곡은 5분 30초, 짧은 곡은 25초면 끝난다.

하지만 소설가 앙드레 지드가 “가장 작은 소품이라고 해도 그 안에 아름다움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지니고 있다”라고 평한 것처럼, 갖가지 보석들이 한데 모여 여러 색깔로 반짝이는 동시에 그 절묘한 조화를 들려주는 걸작이 바로 이 곡이라 할 수 있겠다. 한 마디로 쇼팽이 그려낸 ‘부분’의 조각들을 통해, 쇼팽의 미학의 ‘전체’와 낭만주의 피아니즘의 ‘우주’를 조망할 수 있다.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였던 한스 폰 뷔로(1830~1894),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코르토(1877~1962)가 이 곡에 붙여 놓은 표제들도 참으로 흥미롭다(※곡마다 인용된 표제는 ‘쇼팽-폴란드에서 온 건반 위의 시인’(김주영 저)에서 참조).

- | | |
|---------------------------------|---|
| 제1번 C장조
Agitato | 1분이 되지 않는 짙막한 곡이다. 다소 특이한 박자(2/8)로 구성된 1번은 경쾌하고 즉흥적인 느낌이 강하다. |
| 제2번 A단조
Lento | ‘슬픈 영상, 아득히 보이는 쓸쓸한 바다, 병으로 고뇌하는 쇼팽’(코르토). 반복되는 우울한 리듬을 타고 우울한 선율이 흐른다. 왼손이 만들어내는 리듬과 분위기를 잘 다루는 것이 제2번의 포인트다. |
| 제3번 G장조
Vivace | 왼손의 날렵한 움직임이 ‘시냇물의 노래’(코르토)를 만들고, 선율은 강한 싱커페이션의 흐름을 띤다. 서정적이면서도 밝은 분위기다. |
| 제4번 E단조
Largo | ‘질식’(뷔로)이라고 했는가 하면, ‘무덤가, 진주 같은 눈의 시, 눈물의 노래’(코르토)라고도 했다. 2·3·4마디에 붙어 있는 C음을 충분히 끌면서 구슬픈 선율을 잘 살려야 하는 곡이다. 쇼팽이 이 곡을 매우 좋아했다고 하기에 그의 장례식에서 연주되기도 했다. |
| 제5번 D장조
Molto Allegro | 느리게 흐르는 제5번과 제6번 사이의 제4번은 ‘짧은 순간의 음악’이다. 가볍고 화려한 분산화음과 발랄한 전제가 인상적이다. 갑작스레 끝난다. |

제6번 B단조
Lento Assai

‘타종’(벨로)이라는 표현처럼, 왼손은 느긋하게 음을 반복하여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게 한다. 이에 맞춰 오른손은 단조롭게 흔들린다. 마지막에 이 리듬은 피아니시시모(*ppp*)로 조용히 끝맺는다.

제7번 A장조
Andantino

17마디의 짧은 곡이다. 선율과 화성도 극히 단순하다. 하지만 그 깊이감은 만만치 않다. 제6번의 선율 동기와 자연스레 이어지는 분위기로 깊고 시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제8번 F#단조
Molto Agitato

4/4박자로 정신없이 휘몰아친다. 특히 크레센도(점점 크게)의 주법이 곳곳에 녹아 있어 악음으로 연주하다가 음량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간다.

제9번 E장조
Largo

‘폴란드의 최후, 크고 진지하며 장대하고 힘찬 음악’(코르토). 폴로네이즈적인 싱커페이션으로 진행되는 선율, 느리게 흐를 때만 느낄 수 있는 중후한 분위기가 살아 있다.

10번 C#단조
Molto Allegro

초반부의 하행하는 셋잇단음표가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인상을 준다. ‘암흑의 하늘에서 빛을 발하며 밤나방이 날아오는 환영’(아르토).

11번 B장조
Vivace

경쾌한 박자감(6/8)이 만들어내는 경쾌한 악상이다. 아기자기한 구성미가 돋보인다.

12번 G#단조
Presto

‘결투’(벨로)나 ‘말을 타고 달리는 밤, 여름의 폭풍’(코르토)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곡이다. 맹렬하며, 응축된 에너지를 짧은 순간 터뜨려내는 힘이 있다. 악센트가 많지만, 전체적으로 거대한 레가토의 선이 음들을 엮고 있다.

제13번 F#장조
Lento

‘별을 보며 고향이 아득한 연인을 생각함. 평화, 경건한 기도’(코르토). 몽환적인 선율이 왼손이 연출하는 나지막하고 조용한 느린 분산화음이 인상적인데, 이러한 화음은 단순히 오른손의 보조를 벗어나 하나의 ‘선율’을 이루는 묘한 구조다. 벨로는 ‘상실’이라는 표제를 덧붙였다.

제14번 Eb단조
Allegro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의 마지막 4악장(Presto)과 유사한 곡이다. 특정한 선율을 끄집어내기보다 건조하면서도 무표정하고 저돌적으로 들이치는 덩어리 같은 화성들도 진행된다. 무엇이 떠오를까. ‘폭풍의 바다, 끓어오르는 피, 급박한 감정’(코르토).

제15번 Db장조
Sostenuto

전체적으로 들려오는 ‘A’음이 마치 빗방울 같다고 하여 ‘빗방울 전주곡’으로 잘 알려진 곡이다. ‘수도원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사랑하는 아기를 달래 잠들게 하는 어머니의 마음’(코르토). 24곡 중 가장 긴 길이를 품고 있기에 그 안에서 다양한 표정들이 충분히 변화하고 살아 숨 쉰다. 중간부에 C#단조로 전조되어 불안정한 흐름이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편안함을 안고 있기에 이러한 대목도 편안하게 느껴진다. 이 곡은 24곡이 이루는 흐름 중 감상의 전환점이자 중심이 된다. 이어질 제16곡의 과격한 시작을 살짝 대비하도록.

- 제16번 Bb단조**
Presto con fuoco
- 악상기호 프레스토(**Presto** ; 매우 빠르게)에 ‘**con fuoco**’(정열적으로)가 붙었다. 현란한 트리볼을 보는듯한 오른손이 그려내는 기교가 압권이지만, 리드미컬한 왼손의 반주가 주는 속도감 역시 한껏 돋보인다. ‘나락의 골짜기 밑바닥을 향한 길’(코르토).
- 제17번 Ab장조**
Allegretto
-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코르토). 열은 왈츠의 느낌이 돋보이는 박자(6/8)를 토대로, 잔잔하게 진행되는 칸타빌레(노래하듯이)풍의 음악이다.
- 제18번 F단조**
Molto Allegro
- ‘저주’(코르토). **D^b** 유니즌의 격렬한 트레몰로와 신경질적인 스타카토로 구성되었다. 화음의 폭탄을 건반 위에 쏟아놓는 듯한 격한 연주다. 마치 오페라 주인공이 내뿜는 거친 레치타티보처럼 분노에 찬 음악이다.
- 제19번 Eb장조**
Vivace
- 베토벤에게는 ‘**E^b**장조’가 교향곡 3번(에로이카)처럼 과시와 영웅적 의지의 조성이었다면, 쇼팽에게는 사랑스런 분위기를 일구는 조성이다. ‘천사의 날개에 안긴 행복한 꿈처럼 행복에 도취됨’(코르토).
- 제20번 C단조**
Largo
- ‘폴란드의 비애가 전면에 떠오름’(코르토). **C**단조의 조성감은 비극과 비장, 구슬픈이다. 슬픔 속에 긴장감이 돌고있으며, 악상은 단조롭지만 슬픔의 다양한 표정을 담고 있다. 빌로는 이 곡을 대놓고 ‘장송곡’이라 칭했다.
- 제21번 Bb장조**
Cantabile
- 한적한 ‘일요일’(빌로)이 떠오르거나, ‘맹세했던 추억의 장소로 쓸쓸히 돌아감’(코르토). 피아노를 위해 태어났지만, 왼손의 화음은 기타 음악처럼 오묘하다. 느리게 부유하는 선율들 사이의 꾸밈음들이 인상적이다.
- 제22번 G단조**
Molto Agitato
- 왼손이 치고, 그 다음 오른손이, 다시 왼손이, 그 다음 오른손이 격한 타건의 변증을 이어나간다. 짧지만 강한 인상을 담고 있다. ‘전투적인 격한 기분’(코르토).
- 제23번 F장조**
Moderato
- 절제된 왼손의 흐름은 오른손이 연주할 선율이 충분히 아름답게 숨 쉴 공간을 확보해 준다. 오른손 선율은 목가적이고 자연스럽다. ‘물의 여신의 장난’(코르토).
- 제24번 D단조**
Allegro Apassionato
- 빌로는 ‘폭풍우’라 했고, 코르토는 ‘젊은 피, 죽음’이라고 했다. 격렬한 왼손의 움직임이 긴장감과 분노를 연출한다. 그 위로 오른손의 트릴, 하강하며 내려찍어버리는 듯한 아르페지오 등이 다양한 기교의 장면들을 연출한다. 마지막 부분에 왼손이 연주하는 장엄한 **D**음은 24곡의 고개를 넘어온 이 곡의 마침표를 찍는 종소리와도 같다.

글 | 송현민(음악평론가)



한국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되어 너무 설렙니다! 열정적인 관객들을 위해 얼른 연주 하고 싶어요!

**지난 공연 이후 4년만에 내한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꽤 잘지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음악가들의 삶은 물론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저한테 2022년은 북미와 유럽을 순회하는 투어로 생산적인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날렉타 레이블에서 11번째 음반을 위한 녹음을 마쳤어요.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을 라벨과 쇼팽의 곡으로 구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쇼팽은 분명해요. 한국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2015 쇼팽 콩쿠르를 통해서일 것이에요.

그 이후로 매년 쇼팽의 새로운 작품을 연주하고 배우고 있어요. 2021년에 프렐류드 전곡 녹음을 했고, 한국에서 24개의 프렐류드를 처음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뻐요. 라벨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가 선택한 작품들은 모두 주제적으로나 음악적으로 서로 잘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내한 때 모두 쇼팽의 작품들로만 구성했기 때문에 제가 소중한다고 생각한 다른 작곡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c) ElizabethDelage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어떻게 있나요?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음악에 대한 열정을 전 세계 사람들과 계속 나누고 싶어요. 쇼팽 콩쿠르 덕분에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축복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제 자신을 향상시키고 레퍼토리를 확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공연과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한국에서 투어 이후 12월에 일본에서 투어를 합니다. 2023년에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하고,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는 슈트라우스의 부를레스케를, 정말 좋은 음악가이자 제 친구인 에릭 루와는 두 대의 피아노 리사이틀을 앞두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팬들에게 하고 싶은말이 있나요?

저는 관객들이 리사이틀 동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잊고 라벨과 쇼팽의 소리의 풍경에 감동을 받았으면 해요. 저의 목표는 두 천재 작곡가들의 걸작을 최대한 충실하고 아름답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또는 특히 유의해서 볼 것이 있다면요?

곧 서울과 통영에서 만나요!



쇼팽: 24개의 프렐류드,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대 폴로네이즈

CHOPIN: 24 PRÉLUDES, ANDANTE SPIANATO & GRANDE POLONAISE

샤를 리샤르-아를랭(피아노)

ANALEKTA AN29148

이번 리사이틀에서 선보이는 쇼팽 24개의 프렐류드와 더불어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대 폴로네이즈를 연주한 음반이다. 인터뷰에서 “쇼팽은 여전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입니다. (...) 쇼팽의 음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부 작용에 대해 많이 알게 될수록 쇼팽의 창조적인 천재성에 빠져들게 됩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쇼팽 음악의 구성미와 그의 작품들에 대한 아를랭의 생각을 느껴볼 수 있는 음반이다.



쇼팽: 소나타 3번, 환상 폴로네이즈, 녹턴

CHOPIN: SONATE NO. 3, POLONAISE-FANTAISIE, NOCTURNES

샤를 리샤르-아를랭(피아노)

ANALEKTA AN29127

쇼팽 국제 콩쿠르 이후 전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이름을 알린 ‘샤를 리샤르-아를랭’의 첫 앨범으로, 쇼팽 스페셜리스트라는 수식어를 증명하듯 쇼팽 피아노소나타 제 3번 나단조, 작품번호 58과 폴로네이즈 가장조 작품번호 61, 녹턴 작품번호 62를 차례로 녹음하여 음반에 담아내어 발매했다. 프레데릭 쇼팽이라는 작곡가와 그의 작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담긴 음반으로 샤를 리샤르-아를랭이 전하는 쇼팽 후기 작품들의 아름다운 선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라이브: 베토벤, 에스쿠, 쇼팽

LIVE: BEETHOVEN, ENESCU, CHOPIN

샤를 리샤르-아를랭(피아노)

ANALEKTA AN29129

퀘벡 몽칼름 공전에서의 공연을 실황으로 담은 샤를 리샤르-아를랭의 두 번째 음반으로 2016년 가을에 발매되어 베토벤, 에네스쿠, 쇼팽의 음악이 담긴 이 음반은 그라모폰, 라프레 등의 많은 평론가들에게 호평을 받은 앨범이다. 캐나다 언론 La Presse는 “샤를 리샤르 아를랭은 계속해서 깊이 있는 음악적 지식을 향해 전진한다.”고 소개했으며 특히 샤를 리샤르 아를랭이 해석하는 베토벤, 에네스쿠, 쇼팽과 더불어 생생한 현장감이 매력적인 앨범이다.

SHOSTAKOVICH SYMPHONY No.4



필하모니코리아 창단연주회

객원지휘 지중배 피아노 샤를 리샤르-아믈랭

M. Ravel | D. Shostakovich

2022. 11. 25^{FRI} 8:00^{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주관 THE BRIDGE COMPANY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티켓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의 THE BRIDGE COMPANY 02)6094-1001

HYEJI BAK PERCUSSION RECITAL



HYEJI BAK

박 혜 지 타 악 기 리 사 이 틀

2022. 11. 26^{SAT} 8:00^{PM} |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주최·주관 THE BRIDGE COMPANY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티켓 전석 3만원 문의 THE BRIDGE COMPANY 02)6094-1001

문지영 피아노 리사이틀

THE BRIDGE COMPANY

Chloe Jiyeong Mun

스크리아빈에서 슈만,
다시 스크리아빈

2022. 11. 27. SUN 5PM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주최·주관 THE BRIDGE COMPANY 후원 (재)설원량문화재단 티켓 R석 5만원 S석 3만원

예매 영화의전당 busan cinema center 인터파크 티켓 문의 02-6094-1001

예술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더브릿지컴퍼니 연주자 후원 안내

더브릿지컴퍼니와 동행하는 아티스트들이 본인의 예술에 집중하고 세계적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 길이 남을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브릿지컴퍼니와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후원인이 되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정기후원

후원금액	월 1만원 이상
출금	매월 25일 약정 금액 / CMS 자동이체

- ▶ 후원해주신 금액은 법정기부금 단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거쳐 더브릿지컴퍼니로 전달되며, 모든 금액은 투명하게 운용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정산 및 보고됩니다.
- ▶ 일시후원 혹은 단체 차원(법인 등)의 후원은 후원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후원 기부금 사용

- 더브릿지컴퍼니 아티스트 후원
- 음반제작비
- 연수실대관료
- 국내외항공비
- 홍보비용
- 해외체류비
- 각종 제반비용 등

정기후원 신청방법

전화 또는 아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후원 예우

공통혜택

- 특별 세액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 등록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아티스트 지정후원 가능**
-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무료 증정**
- 후원자 감사 문자 발송**
- 더브릿지컴퍼니 뉴스레터 발송**
- 후원금액별 예우 제공**

* 정기후원을 시작하고 3개월 후 회원자격(1년)이 부여되며, 후원 중단 시 회원 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1만원 이상	공통 혜택
3만원 이상	감사선물전달 더브릿지컴퍼니 기획공연 선예매 서비스 제공
5만원 이상	후원금액 3만원 이상 혜택 포함 기획공연 좌석제공(R석/1매) 기획공연 할인율 20%(R,S석/최대 2매)
10만원 이상	후원금액 5만원 이상 혜택 포함 기획공연 좌석 제공(R석/2매) 기획공연 할인율 30%(R,S석/최대 2매)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내 후원자 명단 기재
30만원 이상	후원금액 10만원 이상 혜택 포함 기획공연 좌석제공(R석/4매) 후원자 이름을 담은 연주자 감사메시지 전달 더브릿지컴퍼니 웹사이트 내 후원자 명단 기재
50만원 이상	후원금액 30만원 이상 혜택 포함 기획공연 좌석제공(R석/4매) 기획공연 리허설 초대 (연 1회, 인원 한정) 후원인들을 위한 연주회 및 리셉션 초청 (연 1회, 동반 1인 한정)

STAFF

대표	운동진
기획	윤진성, 민다빈, 조정하, 이정현
디자인	장보화
홍보	인더케이브 견민정



www.thebridgekr.com



[The Bridge Company](https://www.facebook.com/The Bridge Company)



[thebridge_classics](https://www.instagram.com/thebridge_classics)